



에이즈 퇴치운동 선구자 재키 아흐마트

“에이즈 퇴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당연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이즈 퇴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남아공 에이즈 및 에이즈바이러스(HIV) 퇴치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재키 아흐마트(44), 지난 2004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한 에이즈퇴치시민단체 트리트먼트액션 캠페인(TAC) 지도자인 아흐마트는 지난 11년간 남아공의 민주화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며 에이즈 퇴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에이즈바이러스약인 항바이러스치료제(ARV)의 보급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긴장 관계에 있는 그는 이날 강연에서 정부의 의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의 각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교육하는 것이며 나아가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이어 그들을 조직화하는 것이다’라고 아흐마트는 강조했다.

남아공은 약 500만 명이 에이즈 환자가거나 HIV 양성반응자로 돼있어 세계 최대의 에이즈 및 HIV 양성반응자 보유국이다. 그러나 남아공은 정부의 굶통 대량 부패 배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문제에 관련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흐마트는 “문제는 우리가 에이즈 방치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라면서 일반 시민들의 교육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그

리면서 그는 에이즈 문제가 결국 사회의 빈곤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이즈 환자 또는 HIV 양성반응자들이 내부분 사회 빈곤층에 소속돼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에이즈, HIV 감염률이 높은 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에이즈, HIV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다”며 에이즈 퇴치 문제가 단순한 약물 공급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것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와 함께 중산 시민사회계층의 에이즈 퇴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6.2.2〉

에이즈 걸릴 수 있지만 모유를 먹여오 아니면 굶어죽으니까

붉은 모래밭은 가도 가도 끝이 나지 않았다. 적도의 땅, 우간다에서도 오지(奧地)인 동부 쿠미지역 카바타 마을, 에이즈 환자들의 밀도가 특히 높은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이른·아이 할 것 없이 맨발로 흙을 밟고, 전기가 없어 오후 7시만 되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였다. 마을 전체가 가난과 에이즈로 신음하고 있었다. “갓난아기는 생후 18개월 후에 형체가 생기니까, 모유(母乳) 수유만 안 하면 에이즈 감염률

오염혈액 유통 적십자직원 형사처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과 B형, C형 간염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19명을 질병에 감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李炳世) 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정희(吳貞姬·여) 전 중앙혈액원장 등 전현직 혈액원 관계자 25명 가운데 19명에게 각각 1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혈액원 직원들이 오염 혈액을 유통시켜 처벌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혈액을 중복 검사하고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혈액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검사과장 등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액 검사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혈액원 전체의 잘못으로 보이고 직원 개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혈액을 중복 검사할 의무가 검사과장 등 6명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혈액의 과거 경로 확인은 혈액원의 의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원장 등은 2004년 7월 기소됐다.

〈동아일보 2006.2.10〉

을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들은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젖을 물립니다. 모유가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간다에서 3년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상훈(39) 기아대책 지부장이 설명했다.

1988년 ‘케냐 기아대책’ 지부(支部)로 출발한 ‘우간다 기아대책’은 에이즈 고아들을 후원하고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간다 에이즈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은 주로 피부병, 말라리아로 사망하는데 피부병에 바르는 연고제를 쓰거나 말라리아 예방약을 하루에 2알씩만 먹어도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병과 가난, 고통까지 대물림 받는 이 아이들의 약값은 약 2만 실링, 한국 돈으로 1만 원만 있으면, 두 달 동안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고, 열흘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지난달 24일 오전 인구 운으로 마을 ‘조이 크리스천’ 학교 350여명의 ‘까만’ 아이들 앞에 ‘하얀’ 언니, 오빠들이 나타났다. 인천공항에서 30시간을 날아온 서울 대일외고 학생 5명이 보조교사로 나선 것. 8박9일 일정으로 이곳을 방문한 학생들은 아이들에게 노래도 가르치고 색종이로 왕관도 만들어주면서 ‘선생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세 살 때 에이즈에 걸렸다는 크리스틴(15)을 껴안으며 오아름(17)양은 “한국에선 괜히 에이즈 하나까 찝찝하고 혹시 옳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네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건강해서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물, 집, 엄마, 아빠... 모두 다요. 한국에서 내가 부린 투정은 정말 복에 겨워서 부렸던 것 같아요.” 서빈(16)양은 “한국에 돌아가면 용돈을 아껴서 한 달에 2만원씩 꼭 후원할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조선일보 2006.2.2)

태 남성 간섹스 통한 에이즈 감염 예방캠페인 벌여

태국에서 이달부터 남성 간섹스를 통한 에이즈 감염 예방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진다. 이는 남자와 섹스를 하는 남자(MSM) 사이의 에이즈 감염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비정부기구(NGO) 패밀리 헬스 인터내셔널은 태국 현지 관련 NGO 및 보건부 등 정부 기관들과 함께 5개월간 섹스 알러트(Sex Alert)라는 슬로건으로 MSM 에이즈 감염 예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MSM에는

게이(남성 동성애자)와 양성남자, 남성 성매매종사자, 성전환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캠페인은 태국에서 MSM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예방과 치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캠페인 주관 단체들은 지난해 방콕과 북부 관광지 치앙마이, 남부 휴양지 푸켓 등지에서 실시된 에이즈 감염 실태 조사 결과, MSM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콕의 경우 2003년에는 전체 에이즈 감염자의 17%가 MSM이었으나 작년에는 28%로 늘어났다는 것.

태국 보건부 산하 질병통제본부 에이즈 퇴치책임자 솜땀 탸 프라셋속은 올해 예상되는 에이즈 신규 감염자 1만6천 명 중 3분의1을 MSM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패밀리 헬스 인터내셔널의 태국 책임자 솜차이 시프리인찬 박사는 이번 캠페인 기간에 잡지나 라디오 광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MSM들에게 안전한 섹스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외에 태국의 전통택시 툽툽이와 같은 움직이는 광고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MSM들에게 안전한 섹스'에 관한 상담을 해주기 위한 콜 센터와 전용 웹사이트도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6.2.1)

자선 브랜드 'Red' 에이즈 퇴치기금 마련

3월부터 '레드(Red)' 아멕스카드를 선주로 레드 로고가 새겨진 옹포리오 아르마니 선글라스, 빈티지 스타일의 레드 캡 티셔츠 등 다양한 '레드' 브랜드 제품이 출시된다. 그리고 이 제품을 쓰면 아프리카를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레드 브랜드에서 생기는 수익은 아프리카 긴급 구호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세계적 록그룹 U2의 리드싱어 보노(46)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유명 브랜드에 자선을 얹은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외신은 보노가 26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일명 디보스포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의류회사 겐, 신용카드회사 아멕스, 유통화 제조사 컨버스(이상 미국)와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옹포리오 아르마니가 동참하기로 했다. 참여업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보노는 에이즈 퇴치가 인류의 화급한 과제라 보고 긴급 상황을 뜻하는 색깔인 레드를 브랜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AIDS news

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레드는 21세기형 사업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4개 회사의 레드 브랜드 수익금 중 일부는 2002년 설립된 국제구호기구 '글로벌 펀드'에 전달돼 아프리카의 에이즈 예방 활동 등에 쓰인다.

보노는 지난해 다보스포럼 공동 의장을 맡아 아프리카의 기아, 빈곤 추방을 역설하는 등 세계적인 사회운동가로서의 행보를 넓혀 왔다. 이런 공로로 빈 게이츠 부부와 함께 지난해 말 미국 시사잡지 타임의 '200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의 유명세와 레드의 독특한 마케팅이 자신 유화가 김숙이 뿌리내린 선진국 사회를 파고들 경우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일보 2006.1.27)

바이로메드, 日 다카라바이오와 에이즈치료제 공동 개발 나서

바이오 벤처 바이로메드(대표 김선영)는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일본 바이오 기업인 다카라바이오(대표 기토 이쿠노신)와 협약을 체결, 에이즈치료제 등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카라바이오와 바이로메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로메드의 유전자치료 관련 기반 기술과 다카라바이오의 자본, 인프라를 결합해 조직적이고 세계적인 규모로 바이오 신약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다카라바이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바이로메드가 개발한 신약의 해외 라이선싱 활동을 지원하고 다카라바이오가 보유한 바이오 의약품 GMP 생산시설인 '세포 유전자치료 센터'(Center for Cell and Gene Therapy)를 공동 사용하게 된다.

(선자신문 2006.1.25)

국산 에이즈 진단기술 나이지리아 수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이 개발한 에이즈 진단 기술이 아프리카 중서부 최대 국가인 나이지리아에 수출된다. 체외진단약품 벤처인 바이오포커스는 25일 최근 나이지리아의 하이테크 다이어노스틱스(Hi-Tech Diagnostics)와 에이즈(HIV) 신속진단키트 제조 기술이전 및 원료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이테크다이어노스틱스는 나이지리아의 유일한 진단의약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10월 바이오포커스 연구소에 당당자를 파견하여 관련 기술을 이수하면서 바이오포커스와 연

을 맺었다.

이후 바이오포커스로부터 반제품과 원료를 도입해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고 최근에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최종 계약을 마쳤다. 제품은 다음주 HIV STATUS라는 제품명으로 나이지리아 전역에 출시된다. 바이오포커스는 "HIV STATUS는 제조기술과 원료뿐만 아니라 포장재까지 한국산을 사용키로 했다"며 "연간 35억~40억 원 규모인 나이지리아 에이즈 신속진단키트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바이오포커스는 하이테크다이어노스틱스와 나이지리아에서 에이즈 진단키트에 대한 임상시험도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바이오포커스는 "국내에서는 에이즈 양성환자 혈액을 구하기 어려워 대규모 임상시험이 어려웠다"며 "나이지리아 임상시험을 계기로 앞으로 UN 주도하의 대규모 입찰에도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2006.1.25)

칠레, 에이즈 방지물 위해 콘돔 나눠줘

7일(현지시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비나델마르 비치에서 콘돔 모양의 의상을 입은 한 사람이 콘돔을 나눠주고 있다. 최근의 한 여론 조사에서 1600만 명의 칠레인들 중 70% 정도인 가톨릭교도들조차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에 의한 가르침이나 성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 기관의 에이즈 방지를 위한 콘돔 보급 행사에 대해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은 우발적인 성관계를 유발한다며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로이터 2006.1.16)

LA, '안전하지 않은 섹스' 금지규정 만들어

LA카운티 지역에서 남성 동성애자가 주로 만나 관계를 갖는 섹스 클럽이나 목욕탕 등에서 '안전하지 않은 섹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가 실시된다고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또 모든 섹스 클럽과 목욕탕은 이를 알리는 포스터를 붙이고 콘돔을 무료로 비치해야 한다. 마약이나 알코올 복용자의 출입도 막아야 한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LA카운티측이 이와 같은 규제를 만든 이유는 최근의 연구 조사들에서 섹스 클럽이나 목욕탕을 성행위 장소로 이용하는 이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에이즈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

“윤락여성만 성병·에이즈 검사는 성차별”

한나라당 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3일 위생분야 종사자 중 여성에 대해서만 성병과 에이즈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남성 윤락종사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라며 “이 때문에 AIDS 감염 남성이 제주 시내 호스트바에서 일하면서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위생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검진은 ‘전염병예방법’(제8조)의 규정을 근거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종사자의 범위가 여성 종사자에게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은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를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과 특수업태부, 여성 유흥접객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추진 중이며, 성병검진 규정에서도 성차별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6.1.23〉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상대와 무방비 상태에서 성행위를 벌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LA카운티측은 어디까지가 ‘안전하지 않은 섹스’인지, 항문 성교나 구강 성교 등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헤럴드 2006.1.13〉

클린턴, “제약회사들과 에이즈 치료제 싼 가격에 공급 합의”

빌 클린턴(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 뉴욕에서 에이즈 진단제 및 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 사장들과 개발 도상 국가들에 지금보다 싼 가격에 이들 약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에이즈 진단제의 경우 현재 개당 65센트에서 49센트로, 치료제의 경우 현재보다 30센트 싼 가격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2006.1.13〉

연세대 보건대학원 원우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200만원 기탁

연세대 보건대학원(원장 유승홍) 제29대 원우회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에 위치한 대한에이즈예방협회(회장 최강원, 서울의대 교수)에 2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29대 원우회(회장 박희봉, 소화과원장, 영등포구의회 부회장)는 지난 2005년도 보건대학원 원우회 비가운데 의결을 거쳐 난치병을 앓는 환우를 위해 사용하도록 소정의 기금을 마련, 협회 사무실에서 전달했다.

현재 국내에 투병중인 에이즈 환자는 공식적인 집계만도 2,952명에 달하며 이미 70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다. 원우회와 박희봉 회장은 이 같은 국내 실정에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자 뜻을 모은 바, 이날 기금 전달식이 성사됐다.

원우회의 박희봉 회장은 “에이즈의 전파경로를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기회를 가능한 범위 내 확산시켜 많은 사람들이 난치병 치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창우 사무총장은 “후원금 기탁에 거듭 감사드리며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들과 재학생 등 모든 분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져 연세인 다함께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연남뉴스 2006.1.11〉